

‘동북아, 한반도평화와 북한인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2012핵안보정상회의’가 열렸다. 국제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핵의 불법적인 확산과 핵테러를 막자는 것이다. 이란의 핵무기개발에 따른 미국반응도 심상치 않지만, 북한의 핵문제도 6자회담을 넘는 국제안보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가지고 한반도 안보균형을 위협하고 일본과 미국의 본토 공격 가능성까지 암시하는 등 위기상황을 조성하며 한편으로는 미국과의 직접적 접촉을 통해 체제를 보장 받고 국제경제질서에 편입해보려는 그들 나름의 외교안보정책을 일관되게 관철시키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편입 되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정작 인권문제라는 것을 북한은 간과하는 것 같다.

북한의 인권문제는 1990년대 중반 대량 탈북자들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탈북자들의 강제송환반대와 난민지위를 위하여 천만 명의 서명을 받았던 ‘탈북자난민보호UN청원운동본부’의 국내의 활동, ‘좋은벗들’의 탈북자 현지실태조사와 국제 엠네스티운동에 뿌리를 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국제캠페인 같은 인권NGO들의 헌신과 노력이 체코 민주화의 상징 하벨(Havel) 대통령 같은 분들이 동참한 국제시민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인권문제를 국제인권의제로 만들었다. 2003년 유엔북한인권개선 결의안이 통과 되고, 2004년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임명되는 등 유엔 및 EU, 국제NGO 등 국제사회의 관심과 유무형의 영향이 어느 정도 북한의 내부와 정책에도 선한 결실을 맺게 되어 북한은 부분적 이나마 아동권리위원회 등 국제인권조약기구 절차에 참여하고 있고, 미흡하지만 2009년 12월에는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인권상황전반을 점검받는 보편적 정례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를 받았으며, 헌법개정을 통해 “인권”이라 단어를 그들의 헌법조항에 첨가 시키게 된다.

원 재 천

- 한동대학교 국제법률전문대학원 교수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 (前)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장



그 동안 북한은 국제사회가 인권문제를 거론하면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사실 관계 부인과 그들만의 특수한 문화적 상대적 인권보호기준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유엔헌장과 국제인권법과 관습법의 시각으로 보면 북한도 보편적인 국제인권기준 적용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은 이미 유엔의 핵심인권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자유권규약), 경제적사회적문화적권리규약(사회권규약), 여성차별철폐규약 그리고 어린이권리규약 등 모두 4개의 가장 보편적인 국제협약에 가입해 있다. 북한은 또한 무력 분쟁시 인권보호를 위한 “전쟁 희생자 보호를 위한 1949년의 4개의 제네바 조약”(제네바 협정)에 가입하고 있고 “전쟁 범죄 및 비인륜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 불적용에 관한 조약을 비준했다. 유엔 회원국지위를 가진 북한은 국제인권조약의 자발적 당사국으로서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는 과거 소련의 굴라그(Gulag, 정치사상범 집단수용소)와 나치 강제수용소에 버금가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고 언론에 따르면 국민의 1% 정도(20만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고 추산한다. 인기영화배우 차인표씨가 출연한 영화 ‘크로싱’에서 북한 구금시설의 상태를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탈북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만들어진 각종 국제보고서와 강철환씨의 ‘수용소의노래’, 신동혁씨의 ‘세상밖으로 나오다’라는 증언서를

보면,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고문, 신체 절단처벌, 강제노동, 성폭력, 특정 종교인들의 멸절, 영아살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는 처형 등 이 시대에 용인되는 국가의 형벌의 범위를 훨씬 넘는 잔혹한 인권유린이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탈북언론인 강철환씨의 경우를 보면 연좌제로 만 아홉 살에 수용소에 보내졌고, 신동혁씨는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나서 23년 동안 수용소에서 수감생활을 했는데, 본인의 죄가 없는 어린이들을 처벌하고 수용소에 구금하는 것은 유엔의 시민적정치적규약과 어린이권리규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동시에 북한의 헌법과 형법도 위반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정치범 수용소문제와 더불어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은 탈북자문제이다. 탈북자문제의 핵심은 탈북자들의 법적 신분보장이고 강제송환을 저지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주변국들 특히 중국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는 결코 쉽지 않는 문제이지만, 국제법, 중국법, 인도주의적 원칙을 적법절차의 과정을 통해 적용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사료된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불법월경을 한 경제이주자로 구별하고 있다. 실제로 국제난민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난민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경제적인 목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문제는 만약 탈북자들이 중국 측 주장대로 단순 경제이주자라 하더라도 북한으로 강제송환된후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는 데 있다. 실제로 북한은 여행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국가의 허락 없이 외국에 나갈 경우 단순탈북자는 2년까지 로동교화형에 처해질 수 있고, 중국에서 남한 사람이나 종교단체와 접촉을 한 경우 또는 기독교를 믿고 이를 전파하려 했다면 조국반역죄로 5년 이상 구금, 심지어 반역죄로 사형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엔난민조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어느 특정 사회그룹이나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받을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모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국제난민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이런 난민이나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강제송환하면 안 된다는 조항

이다. 결국 탈북자가 경제이주자인가하는 문제는 구체적인 동기와 정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심의되어야 되는 문제인지라 모든 탈북자에 대한 난민적 용여부의 인터뷰와 행정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중국은 거부하고 유엔기구나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있다. 즉 피고인의 입장으로 본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은 고사하고, 아무런 사법적인 절차도 없이 유죄를 선고 받고 형집행을 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원칙과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초대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비딧 몬타번교수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떠날 당시에는 특정한 박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실제 처벌 받는 사례가 존재하므로 이들을 사후 현장난민(refugee sur place)으로 볼 수 있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유엔총회에 제출 했다. 즉 탈북자들은 난민이 아니란 것이 판단 될 때 까지 보호가 되어야 하고, 송환시 사후 관리까지도 해야 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내의 탈북자들은 불법적인 신분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강제결혼이나, 인신매매 등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이들에게 태어나는 아이들은 무국적자로서 전락되어 그야말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이 박탈이 된 채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들을 누군가는(중국이 되든, 유엔이 되든 북한이 되든, 남한이 되든, 국제NGO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보호해 주어야 한다.

아시아 최초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하바드대의 아미르티아 센(Amartya Sen)교수는 ‘자유로서의 발전(Development as Freedom)’이란 저서에서 진정한 국가발전은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것 즉 독재, 가난, 강압적인 국가권력, 불균등한 기회, 차별 등을 줄여나갈 때 시작 된다고 했다. 아마도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북한의 핵문제와 체제보장 같은 문제는 6자회담이든 미국과의 양자 협상 등을 통해 지혜를 모아 풀려 질 것 같다. 우리도 중장기적인 안목과 인내를 가지고 북한인권법, 북한인도주주의밋개발지원법, 북한인권침해기록보존소, 북한인권대

사등 법적, 행정적 인프라, 기구와 재정 및 정책을 마련하여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북한이 자유와 인권의 시대정신을 받아 들여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트위터 현인은 “내가 느끼는 슬픔이나 고통을 다른 사람도 느끼는 사실을 알았을때 우리의 마음은 열려지고 서로의 가슴이 연결됨을 느낀다고 했다.” 타인의 슬픔과 탄식을 듣고 마음으로 느낀다는 것은 지혜와 진정한 입신양명의 첫 관문일 것이다. 어느 탈북시인의 시를 나누며 글을 맺고자 한다.

내 딸을 백원에 팝니다.

장 진 성

그는 초췌했다.
-내 딸을 백 원에 팝니다.
그 종이를 목에 건 채
어린 딸 옆에 세운 채
시장에 서 있던 그 여인은

그는 병어리였다
팔리는 딸애와
팔고 있는 모성을 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저주에도
땅바닥만 내려보던 그 여인은

그는 눈물도 없었다
제 엄마가 죽을병에 걸렸다고
고함치며 울음 터치며
딸애가 치마폭에 안길 때도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던 그 여인은

그는 감사할 줄도 몰랐다
당신 딸이 아니라
모성애를 산다며
한 군인이 백원을 쥐어주자
그 돈 들고 어디론가 뛰어가던 그 여인은

그는 어머니였다
딸을 판 백원으로
밀가루 빵 사들고 어둥지둥 달려와
이별하는 딸애의 입술에 넣어주며
-용서해라! 통곡하던 그 여인은